

장백산천지

제 151 호

2009 년 10 월 2 일

금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6 천만 용사들의 “3 퇴”함을 경축

지난 9 월 19 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민중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6 천여만 용사들의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퇴출함을

경축했다. 천국악단, 파룬따파 현수막팀, 당나라 복장무용대, ”3 퇴”를 성원하는 현수막팀, 요교대는 수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동태망에서 새로운 인터넷봉쇄돌파 시험판을 내놓아 중공의 인터넷봉쇄를 타파했다

자유언론과 진상전파를 몹시 두려워하는 중공은 거액의 자금을 들여 세계에서 제일 큰 인터넷봉쇄공구인 “금순(金盾)”공사를 만들었고 최근에 “록패(绿霸)、남순(蓝盾)를 내놓았으며 “오모당(五毛党) 및 수십만 네트워크 스파이를 양성하여 인터넷사용호의 “공개신분”을 핍박했으며 인터넷을 감독하고 제약하고 있다.

지난 9 월 21 일, 인터넷 민중들을 위해 동태망에서 새로운 시험판인 자유문 6.89U 시험판을 만들었고 22 일에 또 새로운 시험판을 내놓았다. 사용자들은 동태망에서

<http://dongtaiwang.com/loc/software/beta/fg689ub2.exe> 를 내려받기 할수 있다. 이리하여 중공의 인터넷봉쇄가 돌파되고 또다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까밝히는 진상을 볼수 있게 되었다.



“10.1”을 접어들어 중공은 슬그머니 인터넷 공급상인들더러 남순을 안장하고

실명제(实名制)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대륙민중들이 해외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알림

중공의 인터넷봉쇄로 인하여 잠시 정지되었던 “장백산천지”는 동태망에서 내놓은 새시험판으로 봉쇄를 돌파하고 독자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장백산천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들 과 동수들께서 계속해서 성원하고 지도해 줄 것을 바란다.

장백산천지편집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정지하라



금년도 연합국정상회의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뉴욕 연합국총부에서 소집되었다.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온 수뇌자들이 출석했는데 그중 중공지도자 호금도도 있었다. 저상회의 첫날, 뉴욕지역의 부분 파룬궁수련생들이 연합국 밖에 모여 《중공을 해체하자》, 《박해를 정지하라》, 《전면적으로 중공을 해체하자》, 《파룬따파가 좋다》 등 프랜카드를 펼쳐놓고 전세계에 공소하고 중공의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했다.

수치스러운 중공의 폭행



지난 9월 13일 오후 2시, 한국주재 중공령사관 막후지휘를 받은 100여명 중국인폭도들이 한국 안산시 《6천만사람들이 중공조직에서 퇴출함을 성원하는 대회》에 참가한 인사들을 흥기로 마구 때리고 프랜카드와 전시판을 훼손했다. 일부 폭도들이 당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경찰소로 압송되었다.”

중공약당은 중공을 대표할수 없고 중공약당의 존재는 그야말로 중국사람의 수치이다.



눈을 편히 뜨고 마구 거짓을 외치고 있는 중공

중공신화사는 최근에 발표한 《중국 원 파룬궁 연습자는 정상생활을 회복했다.》는 문장에서, 이전에 사실을 위조하여 파룬궁을 모함했던 “생일위조”、“재물갈취”、“사실로 사람을 기권”、“천안문분신자살” 등등 사례들을 중복했을뿐만 아니라 또한 중공의 반사교협회 비서장 리안평의 말을 인용하여 파룬궁창시자는 《국외로 달아난 후 국외령도기구를 세웠고 파룬궁은 암암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참으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다. 파룬궁은 국외에 령도기구가 없고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다 알고 있다. 중공은 이렇게 눈을 편히 뜨고 터무니없이 마구 거짓을 외치고 있다.

중공은 1999년 7월에 파룬궁을 탄압하고 대륙에서 파룬궁수련과 전수를 금지했지만 지금 파룬궁은 전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각국 정부의 수천장의 표창과 지지편지를 받았다. 파룬궁의 주요저서 “전법륜”은 30여

민족의 언어로 번역출판 되었고 더욱더 많은 민중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어느 정부도 파룬궁을 수련하고 전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파룬궁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대만, 홍콩, 오문에서도 파룬궁활동을 공개적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중공의 신화사는 중공의 대변자이며 거짓말의 동지이다. 이러한 악선전은 사회와 인민들에게 극히 해롭다. 중공의 독재체제 하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자유가 없는 기자들은 중공의 지시에 따르는 ‘앵무새’가 되어 참으로 가련한 처지이다. 선과 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악당의 지시에 따라 나쁜 짓을 하면 악보를 받기 마련이다. 지금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천지개벽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앞에서 깨닫고 있다. 정의로운 모든 기자들이여 이 천멸중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루 속히 퇴당, 퇴단, 퇴대하여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란다.